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세션 13,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 1부

© 2024 데이브 매튜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13번째 강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1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참된 이스라엘로 바라보며 마지막 세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발전은 예언적 기대에 이르기까지 예수에게서 가장 먼저 성취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어떤 의미에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집트로의 이동과 출애굽을 거쳐, 그리고 유혹에서,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유혹에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에서, 이제 예수는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스라엘을 만든 약속을 채우고 구체화하는 참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화하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다른 몇 가지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만, 복음서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특히 예언적 기대를 어떻게 성취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이제 참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될 사람들의 핵심을 모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발점, 아마도 가장 명확한 출발점은 예수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12명의 추종자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12명을 선택함으로써 소규모 그룹을

장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12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치 숫자 12가, 우리가 성경의 끝,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 숫자 12가 종종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가치를 의미하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또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약시대 백성과의 연속성을 시사합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핵심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예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절은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16장과 18절에서 예수께서는 뒤로 돌아가서 17장을 읽어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육신으로 네게 계시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네가 베드로임을 네게 이르노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18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회중의 교회에서 죄를 다루라고 지시하신 맥락에서, 그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보자, 17절, 미안합니다, 18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심지어 교회에도, 그들을 이교도나 세리처럼 대하십시오.

이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현대적 개념에 비추어 이 텍스트를 너무 많이 읽을 때 이 텍스트에 불의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을 상상하고, 그 건물에는 목사와 장로, 집사, 합창단, 비서가 있고, 그들은 헌금을 받고 모든 것이 잘 구성되어 있고, 등등등등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교회라는 단어,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칠십인역,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중을 지칭하는 데 사용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교회라는 집단을 지칭한다고 해서 마태가 이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의 현대 교회와 구조, 교리적 진술과 헌법 등을 갖춘 무언가를 상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께서는 자신이 상상하는 새로운 회중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고 있는 새로운 회중은 12제자라는 핵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회중과 유추하거나 연속성을 가진 새로운 회중입니다. 교회의 에클레시아, 죄송합니다. 에클레시아 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번역하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이 21세기에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너무 많은 개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세요. 교회라는 용어는 다시 한번 칠십인역에서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이 종종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단순히 집회,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지금 구약성경에서 그의 집회, 그의 백성과 연속적으로 사람들의 집회를 창조, 설립 또는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텍스트나 복음서에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은 예수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을 만들고, 추종자들의 집단,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10장과 같은 텍스트에서 발견되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양을 모으는 참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과 강도라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문이로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은 와서 나가서 목초지를 찾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고용된 일꾼은 목자가 아니며 양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늑대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리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목자라는 주제에 대해서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슷한 언어를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는, 어린 양떼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의 추종자 집단을 작은 양 떼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을 그곳에서 목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것은 그가 이 양 떼의 목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의 비유 중 다수는 목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목자가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께서 양에 대한 목자로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인 은유를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썬,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로 묘사하고 자신의 백성을 양으로 묘사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의 일부만 읽어 보겠습니다. 몇 부분만 읽어 볼게요. 시작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주권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목자들아, 너희 자신만 돌보아 주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목자들은 양 떼를 돌보아야 하고, 돌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로 여겨지고, 이스라엘은 양 떼, 돌보아야 할 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들을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부적절한 목자로 꾸짖습니다.

7절에서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내가 살아 있는 것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주께서 선언하시느니라 내 양 떼가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모든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느니라. 내 목자들이 내 양 떼를 찾지 아니하고 양 떼보다 자기들만 돌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목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책임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11절, 이는 주권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내가 내 양을 찾아 돌보리니, 목자가 흩어진 양 떼와 함께 있을 때 돌보듯이 하리라.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돌보겠느냐? 구름과 어둠의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출하리라. 그들을 열방에서 인도하여 내고, 나라에서 모아서,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에서, 골짜기에서, 그리고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방목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좋은 목초지와 산에서 돌볼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의 높은 곳이 그들의 목초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34장에서 회복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은 36장과 37장과 함께 하며, 회복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하나님은 목자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진 양과 같으며,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양들을 모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에스겔 37장으로 돌아가서 회복과 새 언약의 맥락에서 한 번 더 나아가 보면, 저자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요, 그는 그렇게 할 것이요, 그들은 모두 한 목자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나의 법을 따르고 나의 법령을 지키는 데 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다윗 자신, 그러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가계에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읽은 신약성서의 목자로서의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즉 양을 모으는 참된 목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에스겔 34장의 성취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양, 그의 흩어진 양들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그는 이제 그의 양, 그의 추종자들, 그의 제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4장의 성취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양 떼, 새로운 백성을 모으기 시작하셨고,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옛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리키는 또 다른 주제는 요한복음 15장과 포도원을 가꾸는 분인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긴 구절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이 구절의 일부만 읽어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정원사입니다.

그는 열매를 맺지 않는 내 안의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버려지는 가지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 말라죽는 가지와 같으니라. 그러면 그것을 주워서 불 속에 던지느니라.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바로 거기서 멈추겠지만, 예수를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포도원 주인이나 정원사로,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속한 가지로 묘사한 것을 주목하라. 다시 한번, 나는 예수가 그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편리한 원예적 은유를 사용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은유는 하나 이고 ,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 은유는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은유입니다.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이사야 5장과 1~7장입니다. 이사야 5장과 1~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내고, 돌을 치우고, 엄선된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망루를 짓고, 와인 압착기도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좋은 포도를 찾았지만, 나쁜 열매만 맺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과 유다에 사는 자들이여,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한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좋은 포도를 찾을 때, 나는 무엇을 맺는가? 왜 나쁜

포도만 맺는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는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것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그 담을 허물고 짓밟힐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가지치기도 경작도 못하게 할 것이며, 가시나무와 가시가 거기에서 자랄 것이다.

나는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가 기뻐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는 정의를 찾았지만, 그는 의로움을 위해 피를 흘렸고, 그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참 포도나무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참 포도나무를 회복하기 위해 오셔서 그들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추종자들을 부르심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시고 예수를 참 포도원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라고 부르심으로써, 저는 예수께서 열매를 맺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가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핵심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따르면 기초를 형성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전체 회중을 위한 기초를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것의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있는 예수님의 대명령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복음서의 가르침을 결론적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된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약속과 의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고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성취의 시대와 구약의 예언적 기대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 자격이 더 이상 민족성, 즉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는 것에 국한되거나 근거하지 않고, 이제 유일한 요구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약속의 참된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약속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는 모든 창조의 맥락에서 아담과 이브로 매우 광범위하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으로 좁혀집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또 다른 좁아짐을 겪지만, 그런 다음 확장될 것입니다. 지금쯤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형태로 추종자들의 핵심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기초이자 핵심이며, 그 중심은 그를 중심으로 하고 그의 인격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그의 백성의 핵심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회중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양을 모으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는 참 포도나무이고 그의 백성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성취하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넘어 책으로 넘어가기 위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정경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문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서신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본 다음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것을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하지만 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그다음 땅 끝까지,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땅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2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끝나고, 8장에서 사마리아로 끝나고, 제 생각에는 땅 끝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데, 바울 당시에는 일종의 지구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명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는 이 진술을 발견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줄 것이요,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구절들 대부분은 사실 이사야서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증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고, 결국 땅 끝까지 증거해야 했습니다. 땅 끝까지라는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 생각에, 사도행전은 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결국 그 백성을 땅 끝까지 확장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기본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의 유대인들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구원이 점점 더 적은 유대인 영토로 이동하여 점점 더 이방인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은 바울과 로마로 끝납니다.

그 맥락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순서가 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일부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남 왕국과 북 왕국을 모두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 왕국은 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즉 남 왕국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사마리아, 즉 북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사마리아에서도 일어났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고 재연합하는 새 언약을 예상합니다.

따라서 북부와 남부 지파는 구약의 예언적 기대에 따라 재통합됩니다. 사도행전 1장의 또 다른 흥미로운 설명은 12번째 사도에 대한 설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유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도행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는데, 사도는 11명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것을 왜 크게 여겼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성취로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12번째

사도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사도행전이 이사야와 다른 구약의 기대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제 12번째 사도를 택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포용하여 전파됨으로써 그 시작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땅의 가장 먼 곳까지 퍼지는 이사야의 회복 계획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28장은 바울과 왕국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 언약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과 기대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기록인 듯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따라, 예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이 공동체는 이제 구약의 예언적 본문과 약속을 성취하면서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또 다른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평화를 가져다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연합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는 이미 몇 번이나 바울의 언어에 이사야서에 대한 암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깝고 먼 언어 중 일부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의 회복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은 새로운 인류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일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이미 새 언약에 대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로 돌아가면, 새 언약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회복되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언약의 성취, 성령의 은사로 예시된 것, 고린도후서 3장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새 언약 본문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새 언약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새 언약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정되었다면, 새 언약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성취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언약 공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새 언약,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새 백성을 회복한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과 새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약속이 예수께서 이 열두 제자나 사도들을 모아 창조하기 시작하신 이 새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이방인을 포용하기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 약속이 성취되는 새 언약의 빛에 비추어 볼 때의 장면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 방식은 질문을 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이러한 약속,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되어 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적 기대에서 절정에 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들을 회복하실까요? 질문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은,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녀일까요? 누가 아브라함의 참 씨일까요? 1세기와 그 이전의 대부분 유대교 종파는 이 질문에 대해, 글썄요, 아브라함의 민족적 자녀인 사람들로 대답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에 속하는 사람들.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이스라엘인인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살펴본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실제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가 다루고 있는 유대교도들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율법, 음식법,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기되는 질문은, 아브라함의 참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질문에 답하고, 정면으로 그 질문을 다룹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6절부터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씨앗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당신의 씨앗에 대해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일치하게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과 일치하게 바울은 또한 예수를 아브라함의 참된 씨앗으로 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좁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도달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의 진정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 우리가 이미 언급한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3장의 맨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 교회, 갈라디아인들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그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하세요. 우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그의 추종자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29절의 열쇠는 16절입니다. 즉,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 아브라함의 참된 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약속을 성취하고 백성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 즉 아브라함의 씨가 된 사람들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에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흥미롭습니다.

대신, 그는 당신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육체적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나무와 가지의 은유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전부 읽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바친 반죽의 일부가 거룩하다면 반죽 전체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가지 중 일부가 잘려 나갔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당신이 다른 가지들 사이에 접붙여져 올리브나무 뿌리의 영양이 되는 수액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다른 가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뿌리를 지탱하지 않지만 뿌리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가지들이 꺾여져서 내가 접붙여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불신 때문에 꺾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오만하지 말고 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당신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1장에서 포도나무는 하나이고 가지는 두 개라는 사실의 맥락에 있습니다. 자연 가지와 야생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고, 야생 가지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명의 별개의 사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히 같은 포도나무에 연결된 하나님의 한 백성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이 나무와 가지라는 은유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발견되는 가지와 포도나무에 대한 유사한 언어를 다시 한번 반영하는 듯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은유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은 접붙일 수 있는 자연 가지와 야생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두 개의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울 문헌에서 우리가 이미 논의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요소로 돌아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종종 그의 교회를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어를 가지고 선거 언어가 더 잘 이해되는지, 그리고 예정 언어가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칼빈주의적 틀 안에서 더 잘 이해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타당한 토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 저는 단순히 이 용어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바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과 7절, 그리고 제가 읽을 이 텍스트들 대부분에서, 그 중 몇몇은 바울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때 서신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11절, 미안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나님께 사랑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에베소서 1장과 3, 4절, 로마서 본문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1장 3,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는 단지 좋은 가족 언어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언약의 언어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바울이 그의 독자들을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에 의해 예정된 자들로서 묘사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많은 본문들을 지적할 수 있지만, 제가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가 골로새에서 연설하는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오, 선거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나 칼빈주의적 틀에서 더 잘 이해될까요? 아니면 다른 틀에서 더 잘 이해될까요?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언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표현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미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읽은 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는 강력한 손으로 당신을 인도하여 노예의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권세에서 당신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참조 사슬에서 하나의 고리일 뿐이며,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선택하신 언어,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할 때 신약의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언어를 그 감정적 영향으로 온전히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과의 연관성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 이미지에서도 비슷한 것을 봅니다. 콜로새서 1장과 12-13장. 저자는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12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기업과 빛의 왕국을 나눌 자격을 갖추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는 그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땅을 상속받는 언어인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제 다시 새 언약의 언어, 죄 사함을 주목해 보자. 하지만 나는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을 얻었느니라는 구속의 언어에 집중하고 싶다.

저는 이 구원의 언어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나중에 구원의 주제와 새로운 탈출의 성경적 신학적 주제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언어와 탈출과의 관련성입니다. 탈출기 6장 6절과 7절은 우리가 이미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다시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과 6장과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멍에 아래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며, 내 뺨은 팔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이 구속 언어와 관련이 있는 듯하고, 이는 다른 곳의 구속 언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구속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시 읽는 그 본문에서 우리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시하셨다고 말합니다. 봅시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것은 25절에서 그의 피를 통해 옵니다. 이제, 저는 이 구속 언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맥락에서 발견되는 구속 언어로 돌아간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의 참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약에서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새로운 백성을 구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새로운 백성을 노예와 속박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한때 속박에 있었고, 어둠 속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이제 그는 당신을 데려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서 당신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탈출에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탈출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여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제 다시 한 번 그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구원하여 새로운 탈출에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약성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예언적 기대가 에베소서 5장,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한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같이 하라. 이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준비시키사 티나 주름이나 그 밖의 아무 흠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빛나는 교회로 자신에게 바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리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미워하시는 것같이 자기 몸을 먹이고 돌보느니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신비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구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바울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또는 예수와 그의 백성의 관계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 해야 할 일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인데, 이는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방황할 때마다 종종 간통, 불충실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불성실한 아내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종종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라는 은유를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백성은 지금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새 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 그의 아내, 그의 백성,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의 장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에는 여러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종종 신부와 결혼, 그리고 혼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다시, 간통 이미지.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실할 때를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어떻게... 이사야 54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미래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유배 중이기 때문입니다.

54장, 노래하라, 아이를 낳지 못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아. 노래를 터뜨리고 기뻐 외쳐라, 산고를 겪지 못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황폐한 여인의 자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 천막의 장소를 넓히고, 네 천막을 펴고, 휘장을 넓게 하라.

주저하지 말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튼튼히 하여라. 네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 후손이 열국을 몰아내고 그들의 황무한 성읍에 정착할 것이다. 사실, 나는 조금 건너뛰고 싶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굴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음의 부끄러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 이상 과부로서의 욕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은 유배를 떠났으므로 과부로 여겨진다. 5절, 너의 창조주,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시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희의 구속자시요,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과부가 된 그의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는 남편으로 여겨지지만, 이제 그는 그의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뒤에는 다시 한번 혼인이나 결혼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1절과 12절에서 더 언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구절입니다. 폭풍우에 휩쓸려 위로받지 못한 괴로움의 도시여, 나는 너의 돌을 터키석으로, 너의 기초를 청금석으로 재건할 것이다. 나는 너의 성벽을 루비로, 너의 문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너의 모든 성벽을 보석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평화는 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귀중한 보석으로 묘사함으로써, 이미지의 일부는 신부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당신은 예루살렘이 신부로 치장하고 그녀의 남편을 위해 이 모든 귀중한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사야 54장에는 이것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 이미지와 남편과 아내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연결을 확립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구약에서 그의 백성인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죄로 인한 유배로 인해 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이제 예언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수많은 연결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 언어와 구약성경의 회복 본문을 활용하고, 새 언약 언어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교회에 적용하고, 교회가 아브라함의 참된 씨라는 사실, 나무가지 은유의 활용, 택함받고 사랑받는다는 언어, 노예 상태에서의 구원이라는 언어,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아내라는 은유,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모든 언어가 이제는 신약성경,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연속적이거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야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있어서도, 특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라고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인 그의 백성,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핵심 요소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정의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식별하는 참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바울의 서신에서 벗어나서 요한 계시록으로 끝나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더욱 발전시킨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강의 13,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부입니다.